

삼성이 또 노동자를 죽였다!
염호석 열사를 살려내라!
3인의 노조 구속자 즉각 석방하라!



삼성전자 천만고객 서명운동

노조탄압 위해 서비스센터를 위장 폐업한 삼성!

노조만들어 교섭하자고 하니 삼성은 지난 3월 해운대·아산이천 3개 서비스센터를 폐업시켰습니다. 이제껏 협력업체 사장들은 A/S수리기사들이 번 돈을 40%나 빼먹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던 사장들이 갑자기 운영이 어렵다며 문을 닫다니요? 삼성이 노동조합을 짓밟으려고 문 닫았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간 협력업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A/S기사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삼성이 업체를 폐업시킬 것”이란 협박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결국 노동조합 주요간부가 있는 센터를 폐업시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노조설립 10개월, 2명이 자결하고 3명 구속!

최종범열사의 죽음 앞에 삼성은 “생활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임단협 성실논의”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염호석열사는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라고 유서를 남겼으나 경찰은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시신을 탈취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영등포센터분회장 등 3명의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법조차 좌지우지하는 삼성과 싸우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지지, 응원해주세요!

구분	이름	주소 (시/구/동)	한마디
1			
2			
3			
4			
5			
6			
7			
8			
9			
10			